

vol.137

언론중재위원회 NEWS

언론 사람

Special News

권성 위원장
베이징대에서 언론중재제도 강연

2011년 해외시찰

스위스·독일 우수 언론사 시찰

11

2011. November



- 03 이달의 주요뉴스
권성 위원장, 베이징대에서 언론중재제도 강연
- 04 해외시찰
스위스 · 독일 우수 언론사 시찰을 다녀와서
- 06 위원단상
영화 '도가니'와 언론의 역할
- 07 직원마당
최고급 아이맥 vs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
- 08 심리후기
불편한 진실
- 09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기돈 크레머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 10 악당이반
그래미보다 큰 국악의 힘
- 12 위원동정
- 13 위원회 소식
- 14 위원회 통계 현황

권성 위원장

베이징대에서 언론중재제도 강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리후 부비서장과 환담중인 권성 위원장(왼쪽)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지난 10월 19일 중국 베이징대 법학원 및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와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해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이날 권 위원장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리후(李虎) 부비서장 및 선쓰바오(沈四宝) 전 부비서장을 만나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를 소개하고 장시간 환담을 나눴다. 언론중재제도를 소개받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언론중재제도라는 매우 선진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CIETAC에도 제도를 소개할 의향이 있으며, 나아가 중국에도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베이징대 법학원에서 ‘한국의 언론중재제도 및 헌법재판제도와 정치’를 주제로 베이징대 법학원 교수 및 재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권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및 헌법재판관을 지낸 경험을 토대로 언론중재제도와 헌법재판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자세히 소개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제도는 국가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제도는 민주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서, 다른 나라에 문화상품으로 수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성공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임을 강조했다.

강연을 마친 후 참석한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강연을 경청한 왕웨이(王磊) 베이징대 법학원 부원장 등은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와 언론중재제도로부터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들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

스위스 · 독일 우수 언론사 시찰을 다녀와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수행한 해외시찰 방문국가는 유럽대륙에 위치한 스위스와 독일 등 2개 국가였다. 첫 번째 방문국인 스위스와 관련해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대부분의 독일어 국가명이 중성명사로 사용되는데 반해 스위스의 경우는 독일어 국가명이 여성명사(die Schweiz)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스위스는 대부분의 도시가 호수를 끼고 있으며, 유명한 3대 호수로는 제네바의 레만 호, 루체른과 니트발덴의 루체른 호, 취리히 남동쪽의 취리히 호를 들 수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과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린 호수로 이루어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왜 스위스가 여성명사로 취급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 방문했던 곳은 스위스 루체른에 소재한 ‘노이어 루체르너 자이퉁(Neue Luzerner Zeitung)’ 사였다. 이 언론사는 루체른에 본사를 둔 지역신문으로 약 29만명 정도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9월 16일 해당 언론사를 방문했을 때 스테판 라가즈(Stefan Ragaz) 편집부국장이 입구에서 환대했다. 그는 리마트 뉴스페이퍼(Limmat Newspaper)라는 지역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5년간,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으로 5년간 근무한 뒤 현재 이 언론사의 편집부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는 ‘노이어 루체르너 자이퉁’ 및 스위스의 언론피해구제 절차 및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라가즈 부국장에 따르면 스위스 매체의 특징은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신문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위스의 언론피해구제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매체 자체의 자율적 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 항의를 하거나 요구를 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신문사를 통한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

우 스위스 국민들은 ‘프레세라트(PresseRat)’ 라는 일종의 신문평의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프레세라트라는 기구는 한국처럼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와는 달리 언론계가 신문이나 잡지의 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한 자율기구이며, 구성원은 전직 기자나 매체관련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문제된 언론사에 자문이나 권유를 하는 하지만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프레세라트의 권고사항이나 자문사항에 대해 언론사나 기자들은 이를 직업윤리적 차원에서 수용하게 된다. 라가즈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경우 프레세라트에서 10년간 3건 정도의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이어 루체르너 자이퉁’ 사는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매체집중도가 높아져 스위스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고 이것이 모범이 되어 타 언론사의 경우도 이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신문사가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편집국과는 전혀 무관하게 활동한다. 즉 편집국과 독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그리고 보통 1인을 임명하며, 대상자는 주로 저명한 지역 인사를 채용한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연락처 및 소개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이 옴부즈만에게 접촉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노이어 루체르너 자이퉁의 경우에는 저명하고 신망이 있는 지역인사를 채용한 바 있고, 16년의 옴부즈만 운영기간 동안 13년은 신문방송학과 교수, 3년은 전직 언론사 편집국장 퇴직자를 채용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노이어 루체르너 자이퉁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지면에 정정 고정린(Korrek Tur)을 두고 해당 지면을 통해 정정 기사를 게재하며, 해당 지면에서는 문제된 기사에 대해 자세한 후속보도나 해명 기사를 게재하기도 한다. 또 심각한 오보의 경우에는 새로이 인터뷰 기사를 상당량 반영해 보도하기도 한다.

노이어 루체르너 자이퉁사의 시찰을 마치고 9월 18일 뮌헨을 향해 출발했다. 뮌헨을 가는 동안 고속철도 안에서는 독일의 잘 정리된 평화로운 농촌마을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덴제 호수(Bodensee)도 차창 밖으로 볼 수 있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독일의

국경지대에 걸쳐 있는 거대한 보덴제 호수는 알프스의 만년 빙하설이 만든 호수로서 평균수심이 90m에 이르고 호수둘레가 200km로서 독일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최고의 하계휴양지로 꼽힌다.

이어 도착한 독일 남단의 도시 뮌헨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두 번째 방문도시인 뮌헨은 바이



에른주의 주도로서 남부독일의 문화, 경제 중심지이다. 이곳은 특히 우리에게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리는 맥주축제, 일명 ‘옥토버 페스트’로 유명한 도시인데, 축제기간에는 세계에서 700만 명이 모여든다고 한다. 뮌헨은 도시 중앙에 있는 마리엔 광장에 위치한 호프브로이 하우스로도 유명하다. 이곳은 잘 모르는 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만의 침묵을 즐기는 독일인들의 성향과는 달리 시골벽적 다른 사람과 건배하고 이야기하고, 세계의 많은 여행자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사실 호프브로이 하우스에서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4시간 이상의 긴 고속철 여행에서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책만 보고 있던 옆 좌석의 독일 여성을 보며 느꼈던 선입견이 어찌면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뮌헨 도착 다음 날인 9월 19일 방문했던 쥐드도이체 자이퉁(Süd-deutsche Zeitung)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자이퉁, 디 벨트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3대 일간지 중의 하나이다. 쥐드도이체 자이퉁에는 독자투고란에 정정보도란이 있다. 이 고정란에서는 일시나 이름 등의 단순오기 사인에 대한 정정보도가 게재된다. 기사의 주요내용에 논란이 있을 시 정정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사전에 독자의 집착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어서 세 번째 방문처는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자율적 언론평의기구인 도이처 프레스세라트(Deutscher Presserat)였다. 베를린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 때 동서냉전시대의 상징이었다가 1990년 동서화합의 상징이 되었으며, 통일독일의 수도로서 독일 최대의 도시이다. 베를린의 대표적 랜드마크는 브란덴부르크 문이다. 동서독 분단시에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베를린 장벽이 양쪽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동서냉전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1990년 통독 이후에는 새

로운 시대의 대표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이 문 위에는 승리의 여신이 끄는 “승리의 콰드리가 전차 조각상”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 밖에도 페르가몬 박물관, 보데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이 모여 있는 박물관섬이 유명하며, 이곳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바빌로니아시대의 건축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고대도시의 일부분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하다. 또한 각종 행정기관과 의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 주독대사관도 베를린 슈틸러스트라세에 자리 잡고 있다.

9월 21일 오전 10시경에 도이처 프레스세라트를 방문했을 당시 환담했던 루츠 틸만 변호사는 평의회장으로 20년간을 근무했다. 틸만 평의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가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언론분쟁과 관련된 한국 상황의 이해에 관해 커다란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에 따르면 도이처 프레스세라트는 출판인 단체, 잡지 단체, 언론인 단체, 언론노조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자율적 독립기구이다. 언론인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데, 이 강령에 위배된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불만사항으로는 강령위반, 보도의 정확성, 선입견 보도, 인권침해 보도, 간접광고 보도, 미확인 보도 등 다양한 사안이 처리되고 있었다. 도이처 프레스세라트의 심의결과 단순경고, 견책, 주의, 공개경고 등을 결정하고 해당 언론사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한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렇게 통보된 사항은 거부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한다.

스위스 및 독일에서의 시찰을 수행하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방문 언론기관의 경우 해당 언론사 내의 자체 불만처리 시스템에 대해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보도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견반영 등을 통한 언론피해구제 메커니즘은 사후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 예방책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수행과정에서 해당 국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스위스, 독일 국민들이 자신들의 전통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었다. 예컨대 독일인들은 세계대전 과정에서 패전국가로 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신적 유산은 지금까지 유럽 중심국의 지위를 지탱하는 근저리는 점을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각시키고 있었다. 또한 짧은 기간이나마 그들의 생활상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세계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이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려는 모습이 사회 전반에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 정리 : 총무팀장 이수종

영화 '도가니'와 언론의 역할



김 종 량 위원
전북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영화를 관람한 이들은 한결같이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한 심기와 안타까움,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한다.

'도가니'는 작가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작가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소설을 썼고 이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가히 '도가니 신드롬'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일어났다. '도가니'의 핵심은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일부 교직원들에 의해 장기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진실은 은폐되고 돈과 사회적 위력 앞에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의 절규는 오랜 시간 철저히 외면당해왔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교육계의 행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공직사회, 사법당국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그리고 종교계 일부의 비도덕적인 면면까지 우리 사회의 흑막을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영화가 물고 온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었다. 영화를 관람한 이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대통령도, 경찰청장도 충격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사회 전반적인 의식 개혁을 언급했다. "의식개혁을 위해선 사회 전반의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장도 '경찰이 진정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늦게나마 사건 관련 재수사가 이뤄지고 학교도 폐교하기로 결정됐다.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가니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인 어린 장애인들이 사회의 그늘에서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기득권과 사회제도가 가해자들을 면죄한 데 대한 울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당위성과 함께 '도가니 방지법' 제정도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총체적 흑막이 동원된 조직

적인 범죄라고도 할 수 있을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언론의 본분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 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2006년이였다. 그러나 사건이 영화화되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이전에 가해자들은 일찌감치 공소권 없음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고 말았다. 가해자 일부는 학교에 복직했다. 반면 세상이 외면하던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은 악몽과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들이 받은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아물지 못할 것이다. 이를 보며 만일 언론이 보다 제 기능에 충실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언론은 사회적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불의와 싸워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언론환경이 척박해지면서 경제적인 열악함을 핑계로 자본과 결탁하고 사회 기득권층과 영합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본분을 잃은 언론은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도가니' 사건도 언론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보다 일찍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 왔을 터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언론도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도가니' 사건은 언론이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재무장해야한다는 엄숙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영화 '도가니'의 한 장면

최고급 아이맥 VS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



김문중 변호사
조사팀

‘금품을 거는 등 일정한 약속 아래에서 승부를 다툼, 이긴 사람이 걸어 놓은 물품이나 돈을 차지한다.’ 이것은 바로 ‘내기’의 사전적 정의이다. 내기 한 번 안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내기는 소소한 것을 걸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때로는 그 규모가 커져서 형법상의 도박죄의 문턱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다. 내기는 보통 일정 금액 또는 하나의 물품을 누가 먼저 가지느냐를 놓고 다투지만, 때로는 승자에 따라 그 물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작년 겨울, 결혼이라는 인류지대사를 놓고 나는 내기를 했다. 그것도 승자에 따라 얻는 물품이 달라지는 그런 내기를 했다. 나와 내기를 한 사람을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말이다. 그 분과 나는 서로 누가 먼저 결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자기가 먼저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르게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내기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서로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긴 사람에게 무엇을 해 줄지에 대해 논의하다가 서로의 승리를 확신했던 나와 그 분은 너무나도 센 것을 걸어 버렸다. 나는 평소에도 갖고 싶었던 최고급 ‘아이맥’을 제시했고, 그 분은 혼수 용품 중 하나인 최고급 양문형 냉장고를 제시했다. 즉, 내가 먼저 결혼하면 그 분이 나에게 아이맥을 사주는 것이고 그 분이 먼저 결혼하면 내가 그 분에게 냉장고를 사주는 것이다. 실제 결혼하는 날을 기준으로 승자는 정해진다. 날짜가 같을 경우 시간이 우선하는 사람이 이긴다. 내기치고는 꽤 단가가 센 물품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물품을 걸고 내기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 보다는 자신이 먼저 결혼 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내가 먼저 장가갈 것이 확실하니, 졌을 때의 부담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연구에 매진하던 중 이 내기를 지켜보게 된 모 팀장님은 나와 그 분이 결혼하면 본인이 냉장고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하셨다. 하지만 나와 그 분은 단 번에 이를 거절했다. 서로 냉장고 하나에 인생을 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렇게 그 분과 나는 엄청난 규모의 내기를 했고, 그 내기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기가 효력을 발생한지 1년이 되어 간다. 하지만 아직 승자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서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신혼집에서 흐뭇한 미소로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고, 그 분은 남편과 함께 장을 봐온 물건을 내가 사준 냉장고에 행복하게 채우고 있는 꿈을 꾸고 있다. 누군가는 이 꿈이 현실로 될 것이고 누군가는 상대방의 꿈을 실현해줄 기다리 아저씨가 될 것이다. 물론 나는 나의 승리를 확신한다. 그래서 결혼식 후에 그 분을 미안함에 어떻게 볼 지 좀 걱정이 된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미안하지만 받을 수밖에... 내가 받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분 결혼식에 냉장고를 사줄 생각은 전혀 없다. 물론 축의금은 다른 분에 비해 조금 더 낼 수는 있다. 그래도 아이맥을 사준 본인인데...

단순히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내기를 한 것은 아닐 텐데, 아직도 내기의 승자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씁쓸한 현실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결과를 조심스레 예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여차피 승자는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하시는 것도 관찮을 것 같다. 물론 저를 선택하신 분들은 후회가 없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 잠시 잠잠했던 결혼식 출석요구서가 요즘 속속 도착하고 있다.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을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바람은 이번 내기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단순히 물건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서로의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랄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말이다.

불편한 진실

김태호 조사관
서울제6중재부

테마파크 건축 사업자인 A사는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다. B 인터넷신문을 통해 A사가 문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각종 인·허가가 났고, 검찰은 A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시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이었다. A사는 기사의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기사의 수는 늘어나기만 했다. 게다가 이 기사들은 B 인터넷 신문과 제휴를 맺은 C, D 인터넷 신문에도 실리는 등 점점 널리 퍼지고 있었다. 결국 A사는 세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사건은 싱겁게 끝나는 듯 했다. 오전 심리에서 B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이나 기사를 직접 작성했던 E 기자가 순수히 기사의 오류를 시인했던 것이다. 결과는 정정 및 반론보

도, E 기자는 제보와 자료에만 의존했고 사실 확인이 미흡했다고 고백했다. A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사 작성자인 E 기자가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사를 받아 실었던 C, D 인터넷 신문과도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예상대로 C 인터넷 신문과의 조정은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문제는 D 인터넷 신문이었다.

D 인터넷 신문의 대리인으로 나온 F 부장은 일부에 대해서는 정정할 수 없다고 버티기 시작했다. 하루만 시간을 준다면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정정보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논리였다. '기사 작성 기자가 그 부분도 정정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였다. 그러면서도 'E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는가?', '사실관계 파악은 해보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오로지 '기자의 자존심' 때문에 정정보도로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만 내세웠다.

결국 1시간 30분여의 공방 끝에야 F 부장은 조정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F 부장은 심리실을 나가는 순간까지도 '기자의 자존심'을 들먹여 치킨 중재위원들을 경악시켰다.

사건기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F 부장이 언론인으로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언론인의 자존심'이 아닌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취재와 책임 있는 보도'라는 생각 말이다.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순리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F 부장이 잘 알고 있었다. '언론인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을까? 오히려 기자로서 부끄럽고 민망해 몸 둘 바를 모르지는 않았을까? '불편한 진실'을 누구보다 앞장서 알릴 사명이 있는 F 부장이, 정작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에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씁쓸해졌다.

이달의
책

왜 언론자유, 자유언론인가?

손태규 지음 | 기파랑 | 404페이지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하는 언론자유평가에서 한국이 올해 70위를 기록하며 '자유국' 지위를 잃고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언론인 출신의 단국대 손태규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언론현실을 들여다보는 국내외의 인식차를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재고한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오랫동안 권력의 물리적 탄압에 시달려 온 탓에 대통령이나 정부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지금의 상황을 '완전한 언론자유'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미국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면서 언론인이 아닌 정치인, 법조인, 학자들이 더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는 모순을 봤다고 한다. 이 책은 미국, 영국, 스웨덴, 한국에서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이 어떻게 보호되고 발전됐는지를 법 환경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각국의 사례를 통해 언론이 국가의 정치, 경제 발전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사람은 소금만 먹고 살 수 없다. 햇볕만 쬐다고 살 수 없다. 그러나 소금 없이는, 햇볕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자유언론은 소금이요 햇볕과 같은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기돈 크레머

‘바흐 : 무 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백년의 고독」으로 잘 알려진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라는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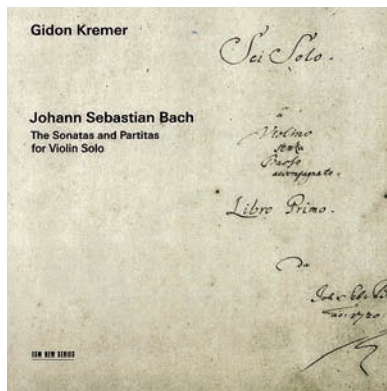
“제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것은 단지 문학적 표현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공할 만한 현실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이것은 종이 위에 쓰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매일 헤아릴 수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매 순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비참하지만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고갈되지 않는 창작의 샘물을 솟구치게 하며, 이런 창조적 샘물을 지닌 콜롬비아 사람은 행운아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시인과 거지, 음악가와 예언자, 전사와 악당, 이 불행한 현실 속에 사는 모든 창조물은 거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삶을 확신할 수 있는 전통적인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독의 핵심입니다.”

길지 않은 분량의 연설에서 마르케스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유럽인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왔고,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현실과 직결된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소설가로서 이러한 현실에 감사하고 있다. 그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 즉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주변부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음악에서도 오랫동안 유럽 중심의 접근과 이해가 견고했다. 고전 음악의 역사이든지 팝음악이든지, 음악의 전개는 곧 서양에서의 음악을 의미했다. 서양 외 세계, 주변부의 음악은 마치 예외적인 상황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차별’이나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용인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서양의 음악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 하나(one of them)로 공평하게 취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상업적으로 여전히 서양의 음악이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변화는 음반에서도 조심스럽게 드러난다. 영국의 지휘자 존 엘리엇 가디너(John E. Gardiner)는 유럽의 교회들을 순례 하면서 바흐의 칸타타를 교회의 절기에 맞추어 녹음해왔다. 그런데 음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나 성화가 아니라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가 찍은 티베트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얼굴들이다. 가디너는 음반의 표지를 통해서 과거 종교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작곡된 바흐의 음악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 즉 신앙을 가지지 않은 티베트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도 삶을 확신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라트비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Gidon Kremer)가 20년 만에 재녹음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음반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기돈 크레머는 이 음반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의해서 부과된 한계를 자각한 겸허한 예술가의 고백이라고 말한다. 개인적으로 이 연주처럼 특별한 무반주 소나타 파르티타는 처음 경험했다. 이 음반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흐의 음악이기에 앞서 세상의 온갖 ‘가공할만한 현실’로부터 비롯된 고



난의 흐느낌처럼 느껴졌다. 기돈 크레머의 연주는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해온 타자들의 얼굴과 고통을 다시 불러내어 대면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200년도 더 된 이 음악이 전적으로 동시대적(contemporary)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동시대성은 작곡가와 연주자의 두 세계가 충돌해서 빚어진 것인데 과거 음악을 악보대로 재현하려는 연주들이나 우리 시대의 비극을 마치 그럴듯한 풍경처럼 피상적으로 다루는 ‘그림같은(picturesque)’ 연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명력이 꿈틀거린다. 이 생명력이야말로 마르케스가 필요로 했던, 주변부의 삶도 긍정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기돈 크레머의 바흐는 우리에게 고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많은 도구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타자와 겸허히 대면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미보다 큰 국악의 힘

‘악당이반’이라는 국악 전문 레이블에서 나온 한 장의 앨범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중음악이 아닌 국악에서 국내 최초로 그래미상 후보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사비를 털어 국악 전문 레이블을 세운 이후 순수한 열정으로 우리 음악을 지켜나가고 있는 악당이반의 김영일 대표는 이를 ‘작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래미’라는 뉴스 이면에는, 우리가 진짜 보고 듣고 알아야 할 것이 숨어 있었다.

언론 사람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분야에서 노미네이트 된 것입니까?

김영일 대표

「서라운드 사운드」부문과 「월드뮤직」 두 부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미네이트(nominate)’ 된 것이 아니라 ‘엔트리(entry)’ 된 것입니다. 노미네이트는 본선에 진출했을 때 쓴다고 하더군요. 노미네이트 여부는 올해 말 경, 수상 여부는 내년 2월에 발표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상까지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미보다는 국악을 알리는 게 진짜 목표이니까요.

언론 사람

사명감만으로 국악계에 뛰어들었다가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영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김영일 대표

저는 원래 사진작가입니다. ‘그루비 주얼’이라는 영상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의 10%를 음반 제작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실 음반은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직원 한명 월급이 안나옵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도 음악에 있어서 지키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원녹음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다가 스튜디오에서 녹음 하면 30분도 안돼서 ‘아이고 여기서 못하겠네’ 그러세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기름 짜내듯 하지 말고 그분들 계시는 곳을 담아보자고 생각하게 된 거죠. 녹음을 해보면 아무리 명창이더라도 20~30분 지나면 목이 쇠지만, 그걸 공력으로 차고 넘으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듣기 좋은 음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런 경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언론 사람

대감놀이를 잘하는 경기 명창을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들어보니 뒤에서 카나리아가 노래하는 게 들리더군요. 처음엔 실패한 녹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 다시 들어보니 ‘이런 게 자연하고 어우러지는 소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당이반이 고택에서 녹음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일 대표

한옥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식 음악이라면 서양식에 맞춰야지요. 그러나 우리 음악까지 서양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국립국악원에도 한옥 무대가 없어요. 서양식 무대에 격자무늬로 분위기만 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한옥에서 시를 읊고 가곡을 불렀듯 지금 한옥에도 소리를 담아보자 겁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직도 그 산어에 어울리는 한옥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전통 가옥에는 집집마다 성음(聲音)이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서도 그런 한옥이 여태까지 남아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런 집집마다 소리를 넣어주고 싶어요.





언론 사람

집집마다 다른 그 고유의 소리를 찾아내는 ‘김’을 잡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영일 대표

가장 큰 문제는 표본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옥마다 소리의 표본집을 만들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에는 집집마다 자기 소리가 있는데, 집마다 녹음 포인트나 소리 밸런스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주 관가정은 대청이 넓고 깊기 때문에 편성이 큰 가곡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정가악회 음반을 관가정에서 녹음했습니다. 반면에 함양 한옥에서는 방안에서 악기를 무릎위에 놓고 살살 달래가며 연주합니다. 가야금이나 아쟁이 좋지요. 저는 한옥들을 구경만 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직접 앉아서 성음까지 들어봐야 비로소 온전히 체험하는 거라 생각해요. 토방에 앉아 소리꾼과 하루 저녁을 보내면서 소리를 들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언론 사람

녹음장비만 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거라 짐작이 갑니다. 게다가 일반 CD보다 훨씬 비싼 SACD까지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영일 대표

저는 음악을 미디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음악이 세상과 소통할 때 큰 의미가 생긴다고 봐요. 연주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미디어를 통해서라면 관심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국립국악원에 있는 자료들도 데이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포도밭으로 아무리 수정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유산들을 후세까지에 전하기 위해서는 ‘마더데이터(mother data)’를 최대한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돈은 많이 들지요. 하하.

언론 사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마더데이터’는 국악하는 사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자료를 만들고 보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대표

그렇습니다. 한번은 피리 명인과 작업을 하는데, 연주전에는 음악 애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서(일종의 리드) 만 물에 살짝 담갔다 속 붙입니다. 녹음된 걸 들려드리면 그 분은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지만, 제자들은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해요’라고 말해요.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계시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보존해 놓아야지요. 또 ‘지켜보기’ 위해서도 데이터의 축적은 중요합니다. 국악에도 깊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지난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 연주자가 어떤 발전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연주자는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 사람

요즘은 판소리보다 정가 쪽으로 많이 작업하고 계신가요?

김영일 대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미 때문에 보도가 치우친 면이 있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판소리 음반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판소리가 더 다양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음악 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종묘제례악, 판소리,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가곡이 포함돼 있어요. 음악이 6가지가 등재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언론 사람

최근에 문화계도 언론을 많이 활용합니다만, 국악계는 언론보도가 꽤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미’ 리는 큰 효재가 여러 번 보도됐는데, 이번에는 언론보도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김영일 대표

예전에는 음반 주문을 받으면 한 두 장이었어요. 그런데 보도 이후에 처음으로 주문량이 열장 단위로 늘었어요. 판소리 같은 경우 10장이면 일 년 판매량이거든요. 물론 보도가 잘못 나간 경우도 있긴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미에 엔트리되었다고 알렸는데, 노미네이트되었다고 보도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몇몇 언론사에서는 정정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언론 사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신다면?

김영일 대표

사실 한국음악에 K-pop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K-pop이 있으면 K-traditional도 있고 K-classic도 있는데 그걸 아우르는 K-music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없어요. 앞으로는 클래식도 우리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음반사가 없어서 한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음반을 내질 못해요. 그래서 악당이반에 이어 ‘오뉴월’이라는 레이블을 통해 우리 클래식 음악가들의 소리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차이코프스키 기념 국제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손열음 양과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악도 꾸준히 해야죠. 사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산조 등에서 유과의 시조로 보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날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COMMISSIONERS



▶ 6.25 참전유공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외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이사장)은 9월 28일 이용우 전 대법관과 함께 저소득 6.25 참전유공자의 거처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권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현실에 진심어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는 10월 12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찬행사를 갖고, 같은 날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해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글교육과 민족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랑의 일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선진화포럼 토론회 참석



박성희 위원(서울제1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교수)은 9월 27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위원은 사회적 가치가 물질적 풍요에서 정신적 풍요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사회공동의 가치확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구 사랑의 열매 봉사단' 발대식 개최



김형태 위원(대전중재부, 변호사)은 9월 22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으로서 대전 서구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서구 사랑의 열매 봉사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봉사단원과 모금회 임직원이 참석하여 봉사와 나눔을 위한 열의를 높였다.

▶ 중앙선데이 인터뷰



김수정 위원(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교수)은 중앙SUNDAY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위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은 경쟁에 지친 시청자들의 평등에 대한 욕구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했다.

▶ 제1회 강원법조세미나 개최



© 강원도민일보

이택수 위원(강원중재부,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은 9월 26일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제1회 강원법조세미나'를 개최해 현 법조계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한편 이 위원은 9월 30일 춘천시 수화통역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춘천시 농아인협회에서 수여한 감사패를 받았다.

▶ 부산기상청 직원 대상 '명예훼손과 언론중재' 강연 외



송동선 위원(부산중재부, 前국제신문 편집위원)은 10월 19일 부산기상청에서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언론중재-대 언론 홍보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송 위원은 또 지난 9월 27일 경남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언론중재-잘못된 보도유형 및 조정 중재 사례' 주제의 강연을 했다.

▶ 청어람 도서관 선정, '사람책'으로 청소년과 대화



권범 위원(제주중재부, 변호사)은 서귀포 청어람 청소년도서관이 운영하는 '사람도서관(청소년의 귀감이 될 만한 어른이 사람책이 되어 청소년과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의 '사람책'으로 선정돼 진로를 주제로 청소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NEWS



국제 차세대 글로벌리더 컨퍼런스 강연



권성 위원장은 10월 3일부터 8일 까지 개최된 경기도 국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컨퍼런스에 기성세대전문가로서 '헌법재판과 정치'를 주제로 강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법과 이성에 의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독창성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행정 기여 공로 감사장 받아



광주사무소 김윤정 소장은 10월 21일 제6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언론중재교육활동을 통해 경찰행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설명회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설명회가 10월 1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남미 해외 실무연수자들의 결과보고를 비롯해 회지 각 부분의 자료선정 취지와 수록 논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신임 중재위원 위촉

임기만료된 중재위원의 후임으로 아래와 같이 10명의 신임 중재위원이 10월 13일자로 위촉됐다.

중재부	성명	경력사항	비고
서울제2중재부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제5중재부	최복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박현재	前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한균태	경희대 정경대학 학장	
서울제6중재부	이영진	변호사	
	노정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임경록	고려대 미디어학부 초빙교수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제7중재부	박정호	변호사	
	이창환	前 KBS 기자, 논설위원	

가을 체련행사 개최



사무처는 10월 28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가을 체련행사를 가졌다. 청명한 날씨 속에 개최된 이번 체련행사에 참석한 사무처 직원들은 깊어가는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직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한편 각 지역사무소에서도 자체 일정에 따른 체련행사를 실시했다.

2011년 10월, 언론중재위원회는...



●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2011. 1. 1 ~ 10. 20 기준)

위원회는 10월까지 모두 1,83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584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92건(동의 51건, 이의 30건, 계속 11건), 조정불성립결정 213건, 기각 35건, 각하 8건, 취하 867건(583건), 계류 35건이며, 피해구제율은 69.8%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515건, 인터넷뉴스서비스 450건, 방송 188건, 뉴스통신 52건, 잡지 8건, 기타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0월까지 모두 102건의 중재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는 96건의 중재결정을 내렸고6건은 취하되었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청구 건수	본안 심리 건수	처 리 결 과										성 공 및 구 제 율		
		조 정 성 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조 정 성 공 률	본 안 성 공 률	피 해 구 제 율
			동 의	이 의	계 속				심 리 전	심 리 중				
1,834	1,208	584	51	30	11	213	35	8	548(406)	319(177)	35	72.3%	82.4%	69.8%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조정성공률= $\frac{\text{조정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text{조정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

※ 본안성공률= $\frac{\text{본안성공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심리 중 취하)}}{\text{본안심리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조정불성립결정+심리 중 취하)}}$

※ 피해구제율=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계속+기각+각하+계류)}}$ *신청접수 후 심판정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중재신청 처리현황〉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취 하	계 류
102	96	0	0	6	0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1년 9월 29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총 38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자 신원 공개 26건, 피의자 신원공개 5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3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2건, 사생활 침해 2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22건, 일간지 11건, 주간지 3건, 뉴스통신 2건이다.

● 2011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 현황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는 선심위가 발족된 8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차례 회의를 열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6건, 여론조사 보도 요건 위반 15건 등 21건에 대해 경고결정문 게재 3건, 주의사실 게재 1건, 주의 15건, 권고 2건을 결정했다. 한편, 후보자의 시정요구 1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 상담 현황 (2011. 9. 21 ~ 10. 20 기준)

언론중재위원회는 10월 한 달 간 213건의 상담(중복상담 포함)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기관 안내 15건, 재상담 예정 10건, 법적절차 안내 4건, 자체종결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63건, 방송 50건, 주간신문 24건,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20건, 뉴스통신 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10월 20일 현재 131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45건, 언론사 33건, 인턴십 프로그램 19건, 지자체 11건, 공·사기업 7건, 대학 8건, 법무 수습교육 3건, 기타 5건 등이다.



위원회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 포털 등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